

## "이이경, 성적 수위 심각...대사관 도움 요청"

등록 2025.12.31 14:08:53



[서울=뉴스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이이경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히트맨2'(감독 최원섭)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2.27. jini@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이이경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가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

독일 여성 A는 31일 X(옛 트위터)에 "이 사안이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된다. 명백한 성희롱 발언을 한 이이경에 관해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며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다.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대방 포렌식 절차에 성실한 협조를 요청한다.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인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문제다. 배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캡처해 공개했다. '이경배우님'이라고 저장된 남성은 "한국 남자 여러 명이 XX해줄게" "3명? 내 절친"이라고 보냈고, A는 "네, 주인님"이라고 답했다.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2024) 촬영장 속 이이

경 사진 등도 담겼다. 카톡 프로필 화면에는 '카카오톡 안 합니다. 연락은 문자로 주세요'라고 써 있고, 올해 이이경이 먼데이 키즈와 함께 부른 '운명'을 배경 음악으로 설정한 상태다. A는 "AI로 생성하거나 조작한 이미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이경과) 대화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시작됐고, 카카오톡으로 이어지면서 성적인 대화가 오가게 됐다. 초기에는 나 역시 일부 대화에 동조한 사실이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와 내용은 점점 심각해졌다. 성적인 대화에 일부 동조했다는 사실이 모든 범위 대화에 전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4월 강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들은 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제보를 결심했다."

A는 "소속사에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난 4월 이이경으로부터 강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들었고, 이전부터 지속된 문제적인 언행이 담긴 자료를 정리해 소속사에 제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소속사에 먼저 언론 제보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전제로 협의하거나 압박을 가했을 테지만, 그러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최근 이이경은 A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 여파로 MBC TV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했고,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MC 합류가 무산됐다. A는 10월20일 네이버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A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 성희롱, 음담패설한 내용이 담겼고, 이후에도 폭로를 이어갔다.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지난달 3일 "당사는 본 사안 관련 어떠한 합의 시도와 보상 논의도 없었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이경은 이달 6일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에서 "사실 축제에는 안 어울릴 수 있는 말인데 자신감 내서 말해보자면, 최근 일기예보에 없던 우박을 맞는 느낌이었다"며 "용의자가 회사 메일로 사죄와 선처를 보내고 있다. 무조건 잡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